

1986년생 '나전북'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 제
(1986~2019)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로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덕에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었으나, 취업 문턱이 높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던 **एको세대**

출생
(1세)

1986

전라북도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1986년생 '나전북'씨
88올림픽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국민학교로 입학하여
초등학교 '96.3월에 명칭 변경'를 졸업 하던 날.

부모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과 덤으로 탕수육까지
사주셨는데...



국민학교
입학
(8세)

1993

초등학교
졸업
(14세)

1999
(2월)

- 출생아 수: ('86년) 28,710명 → ('19년) 8,971명 / 농가 수: ('86년) 204천 가구 → ('19년) 95천 가구
- 짜장면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 ('99년) 48,272 → ('19년) 111,53
- * 품목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으로 환산하면, ('99년) 2,380원 → ('19년) 5,500원으로 상승

중학교
입학
(14세)

1999
(3월)



친구들과 청소시간에 힙합 춤을 추며 한껏 뽐냈던 꿈 많은
중학시절을 보내고,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에 인근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

고2 2학기 개학^{'03.9월}을 하자마자 슈퍼태풍 '매미'로
휴교령이 내리고 집 베란다 창문이 흔들려 무서움에 벌벌
떨며 밤을 지새운 추억~

고등학교
입학
(17세)

2002

- 중학교 학생 수(인구 10만 명당): ('99년) 4,088명 → ('19년) 2,675명
- *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 ('99년) 34.9명 → ('19년) 23.6명
- 시내버스료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 ('02년) 52.470 → ('19년) 108.19
- * 품목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으로 환산하면, ('02년) 606원 → ('19년) 1,250원으로 상승
- 강수량: ('03년) 1,903mm → ('19년) 1,148mm

고2 재학
(18세)

2003

대학교
입학
(20세)

2005

고3 입시생활을 끝내고 사립대에 진학한 '나전북'씨는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군대와 복학생활을
거쳐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려 했으나, 졸업 후 3년간의 도전
끝에 30세에 서비스업 사업체에 취업. 아직도 이곳저곳 이력서와
원서를 넣고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 친구들! "내 꿈은 회사원"



군 제대
(24세)

2009

대학교
졸업
(27세)

2012
(2월)

- 사립대학교납입금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 ('05년) 81.588 → ('19년) 98.99
- * 품목지수를 이용하여 가격으로 환산하면, ('05년) 2,885천 원 → ('19년) 3,500천 원으로 상승
- 고용률: ('12년) 57.5% → ('19년) 59.3%
- 청년실업률: ('12년) 6.8% → ('19년) 9.3%
- 서비스업 사업체 수: ('15년) 39.5천 개 → ('19년) 42.2천 개

취업
(30세)

2015

오늘

(2019~2020)

직장인 '나전북'씨, 여유로운 중년의 삶을 꿈꾸다!

입시와 취업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대로 'N포 세대'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세 중반인 선배의 모습을 보며 여유로운 삶을 꿈꿔 보지만...

입사 5년차
결혼
(34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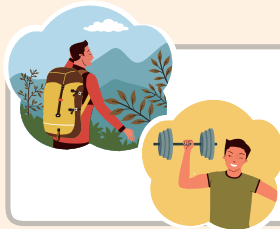
입사 5년차이자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나전북'씨! 그냥 혼자 살까?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한 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전세로
장만하여 34세에 결혼! 10년 후엔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 평균 초혼연령: <남성> ('05년) 30.76세 → ('19년) 33.67세
<여성> ('05년) 27.19세 → ('19년) 30.34세
- 1인 가구: ('05년) 142천 가구 → ('19년) 238천 가구 → ('42년) 296천 가구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11.=100.0): ('05년) 61.6 → ('19년) 94.3

올해 나이
(35세)

2020



2020년 올해 35세인 '나전북'씨! 주변의 40대 중반에 접어든
선배를 보니 워라벨 생활을 위해 담배도 끊고 주말이면 레저 등을
즐기며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 전라북도 인구: ('86년) 2,188천 명 → ('20년) 1,792천 명 → ('47년) 1,583 명
- 현재 흡연율: ('10년) 23.1% → ('18년) 21.1%
- 2019년 평균 여가시간: (전북) 5시간 2분, (전국) 4시간 47분

내일

(2020 ~)

건강하고 행복한 황금빛 노년의 삶을 기대하다!

불안한 노후와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기 싫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세대,
철저한 노후준비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행복한 삶을 기대해 본다.

부모 부양
노후준비

2020

여기저기 아프시다는 60대 중반의 부모님과 병원을 자주 찾는 '나전북'씨!
부모님 치료비와 용돈 등 앞으로 부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아셨는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공기 좋은 요양원을 자주
물어보시는 부모님.



- 의료기관 수(인구 10만 명당): ('10년) 111개 → ('17년) 130개
- 사망원인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8년) 악성신생물(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등의 순
-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백 명당): ('10년) 47.4명 → ('20년) 48.0명 → ('47년) 110.4명
- 요양기관 수(인구 10만 명당): ('10년) 180.2개 → ('18년) 203.6개

황금빛
노년의 삶

20??

생활비 마련에 고민이 깊은 앞 집 사는 노부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옆 집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전북'씨는 철저한
노후준비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 고령인구 비율: ('20년) 20.6% → ('47년) 43.9%
- 고령자 1인가구 비율: ('20년) 11.7% → ('47년) 22.3%
- 고령자 1인가구의 생활: <건강평가>('18년) 나쁨 51.3%, <생활비 마련 방법>('19년) 본인부담 46.2%